

첫 지역 건의형 원주천 댐 착공 689억원 들여 2022년 완공

국내 첫 지역 건의형 댐인 원주천 댐 건설 사업이 본격화됐다. 원주시는 최근 판부면 신촌리 댐 건설예정지에서 댐 건설 사업 기공식을 했다. 한국수자원공사가 위·수탁을 맡아 진행하는 원주천 댐은 2022년까지 길이 210m, 높이 49m, 저수 용량 180만t 규모로 건설된다. 원주천 댐은 지자체에서 댐 건설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고 이후 지역 의견 수렴 등 공감대가 형성돼 국비 지원을 토대로 원주시가 시행하는 첫 지역 건의형 댐이다.

원주천 유역은 1998년에서 2011년까지 14년 동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사망 5명과 이재민 70명 등 인명피해와 58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. 원주천 댐이 건설되면 홍수 때 댐 하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갈수기에는 담수한 물을 원주천으로 흘려보내 건천화를 막고 하천 수량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.

원주시는 원주천 댐 수자원을 활용해 주변을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. 2020년부터 추진되는 원주천 댐 관광지는 36만㎡ 규모에 산림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루지와 숲 체험시설, 물놀이장, 상상공작소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다.

댐 상류인 백운산 400여ha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치유 숲이 조성된다. 치유센터와 명상원, 유아 숲 놀이터, 숲속 작은 도서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.

원주천 댐과 인접한 중앙선 폐선부지에는 2026년까지 490억원을 투



입해 4D 체험 터널과 관광·테마 레일버스, 피크닉장 등을 조성한다. 원창목 원주시장은 “댐이 건설되면 안정적인 물 공급과 치수는 물론 댐 주변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단지가 조성돼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”이라며 “2022년 완공 계획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 ▼



원주천 댐 조감도

누구나 누리는 물 서비스

K-water

500여가지 수질검사

물관리 일원화 1주년

대한민국 물 안전·물 복지

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물순환 서비스 파트너
K-water 한국수자원공사가 실현하겠습니다.

건강한 물

Mineral

Fe

Ca

Mg

K

통합물관리

환경부 | Kwater